현장시선

장 태 범
대한건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회 회장

BCT운전자 파업의 타협점을 조속히 찾길 바라며

시멘트원료를 운반하는 제주지역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운전자들이 지난 10일부터 시멘트의 안전운송운임 인상을 요구하며 한 달 넘게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파업 사태 장기화로 시멘트 원료를 받지 못한 도내 레미콘 공장 24곳에서 레미콘 생산이 전면 중단됐고, 이에 레미콘을 공급받지 못해 공사가 중지된 건설현장이 속출하면서 도내 건설경기에 미치는 파장이 큰 상황이다.

화물연대 제주지부 BCT분회는 안전운임제 도입 전 구간 단위 수준의 운송비 책정 및 단가 인상 등을 놓고 시멘트협회에 협의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시멘트협회측은 안전운임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상황에서 제주만 예외로 하기는 힘든 실정이라는 입장이다.

BCT분회와 시멘트업체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갈등의 골이 깊어져만 가는 현 상황에서 도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피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관급공사·민간공사 구분할 것 없이 도내 대부분의 공사 현장이 중단되어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다. 학교공사, 군부대공사, 읍청사·복지회관·다목적회관 건축공사, 행복주택 건축공사, 방파제공사, 도로공사 등 관급공사 뿐만 아니라 숙박시설, 물류창고, 다가구주택 공사 등 민간공사가 전부 중단됐다. 아직 파악 안 된 소규모 건축공사까지 포함하면 공사 중단 건설현장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을 어르신들, 학생, 군인, 신혼부부 등 애먼 도민들까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고 있는 실로 안타까운 상황이다.

건설회사에서는 철근 가공 후 레미콘 타설 작업이 제때 이뤄지지 못해 철근 자재 부식 등을 우려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재시공을 해야 하는 공사장도 생길 것으로 비관하고 있다. 또한, 공사기간을 못 맞춰 지체상금 발생, 간접비 증가, 입찰참가 불이익 등을 걱정하고 있다.

연쇄효과로 원도급사의 피해가 하도급사, 건설기계업자, 펌프카업자 뿐만 아니라 전기·소방 등 관련업계까지 2차·3차로 번져나가고 있다. 분양회사 입장에서도 분양 일정 및 입주일정 등을 제 때 못 맞춰 난감한 상황에 처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하루하루 벌어서 생활하는 건설현장 일용 근로자들의 생계유지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로 결국 건설업계에 자금이 돌지 않아 도산하는 업체도 늘어 날 수 있다. 그야말로 모든 건설업계 종사자들이 생존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결국 지역경제에 나쁜 영향으로 귀결 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제주경제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딘 최악의 상황에서 건설산업마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면 제주 경제 회생은 더욱 더 어려워질 것이다. 양쪽에서 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기기만 하면 결국 그 줄은 끊어지고 만다. 지금처럼 서로 양보하지 않고 대립각을 세우면 결국 자승자박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도내 모든 경제 주체들이 서로 양보하고 합심할 때이다. 그렇지 않으면 건설산업을 떠나 지역경제 기반 자체가 와해될지도 모른다.

도에서도 BCT 파업 이후 시멘트 제조업체 본사와 제주지사 및 국토교통부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하며 중재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우리 협회 또한 중재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양측이 타협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만큼 BCT조합에서는 우선 파업을 중단하고 시멘트 업체와 대화로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길 다시 한 번 강력하게 호소한다.

열린마당

발바닥 통증의 물리치료적 접근

김 석 진
제주보건소 보건행정팀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수십년간 치료했던 필자로서는 요즘처럼 발바닥 통증에 관심을 가져보지 못했다. 발바닥 통증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방해하고 운동을 불편하게 하여 여러가지 제2·제3의 건강을 위협하는 한가지 요소인 것만은 분명하다.

원인으로 가장 흔히 들어왔던 족저근막염부터 허리원인 발바닥 통증, 근육약화 발바닥 통증, 족관절의 구조적 원인, 뒤꿈치패드 증후근, 건초염, 발목 터널 증후근, 발목 불안전 증후근, 당뇨병 등 다양한 원인이 발바닥 통증을 유발한다.

특징으로 아침에 아프고 낮에는 괜찮다, 아침통증은 없는데 낮에 움직이면 아프다, 아침 통증 없는데 힘이 없고 오래 걸으면 아프다, 아침 통증이 있고 낮에도 아프며 뒤꿈치가 물컹거린다 등이다.

증상으로 뒤꿈치만 아픈 경우, 발 전체가 아픈 경우, 뒤꿈치 및 발바닥 전체가 모래알이 있는 것 같으면서 감각이 둔하다, 뒤꿈치 통증부위가 명확하고 발바닥 불편감이 있다, 발바닥이 화끈거리고 타는 듯하다 등이다.

치료기간도 원인과 치료방법에 따라 3주에서 1년 이상으로 다양하며 이 중 순수한 족저근막염은 물리적인 신경치료만으로도 비교적 치료가 잘 되는 편이다. 치료사는 치료와 함께 반드시 운동처방(운동의 형태·강도·시간)을 해주어야 치료기간 단축 및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직업·운동·식생활 등의 다변화로 통증 패턴과 양상도 복잡 다양해지고 있어 획일적인 물리치료적 접근보다 증상에 맞는 전문적인 물리치료적 접근이 필요할 때이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정부 재난지원금 원 지사 '고도의 셈법(?)'

사용지역 제한 폐지 등 건의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4일 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사용지역 제한을 없애고 현금 지급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발표하며 그 결과에 관심.

특히 "제주도 차원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원 지사는 "제주가 결코 불리하지 않다"고 답변.

이 대답에는 모든 국민에게 주어지는 기금의 특성상 관광 소비 등 제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셈법이 담겼다는 반응. 백금탁기자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권장

○…제주시가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종이고지서가 아닌 개인 이메일이나 스마트폰 금융앱으로 받아보는 '고지서 전자송달'을 시민들에게 적극 독려.

지방세 전자고지는 2018년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돼 전자고지서 송달만으로도 세금고지서 발송 효력을 지니는 법적 근거가 마련.

시 관계자는 "전자고지는 자동차세, 주민세 등 정기분과 수시분 지방세를 신청한 다음달부터 적용되고 건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는다"고 설명. 문미숙기자

교육프로그램 속속 개강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순연됐던 각종 교육프로그램들이 속속 개강을 예고.

서귀포시평생학습관은 떡만들기 기술반 등 모두 42개 과정 교육프로그램 개강을 앞두고 오는 21일부터 수강생을 모집하는가 하면 귀농귀촌인교육·행복드림아카데미 등도 개강에 앞서 홍보·수강생 모집에 착수.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은 만큼 교육 참여시엔 마스크 착용은 필수"라고 설명. 현영종기자

사설

제주4·3특별법 개정 발목잡는 기재부

허탈합니다. 20대 국회 막판에 처리되기를 기대했던 제주4·3특별법 개정이 물거품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심을 잡아야 할 정부가 갈팡질팡하고 있어 실망스럽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과연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4·3특별법 개정안은 사실상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얼마전 20대 국회 마지막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하면서 한가닥 희망을 가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였습니다. 지난 12일 4·3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이날 4·3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은 정부 부처간 협의 미흡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4·3특별법의 골자인 배보상에 대한 당정의 엇박자가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제주공약 가운데 제1공약이 '제주의 아픔 치유'였습니다. 그 첫번째 과제로 제주4·3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등 완전한 해결을 제시했습니다. 후속조치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에도 '4·3 해결'이 포함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 4·3희생자 추념식에서도 정부 차원의 추가 진상규명과 배보상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에서 "과거사는 반드시 배상에 의해서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구윤철 전 차관도 행안부와 4·3희생자 배보상 방식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랬던 기재부가 배보상 재원 마련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 결국 4·3특별법 개정을 무산시켰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이 4·3의 완전한 해결을 수차례 천명했는데도 이를 무력화시킨 기재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의 정부조직입니까.

수백억 황우치해변 공사, 세금낭비 아닌가

안덕면 사계리 황우치해변 침식방지사업이 수백억 투자에도 거의 효과없이 '유명무실' 지경입니다. 해안 모래 유실로 큰 돈들여 해안침식 방지시설사업을 벌였지만 별 효과도 없고 오히려 예산만 낭비한 꼴이라는 지적입니다.

도는 지난 2014년부터 총사업비 172억원을 들여 화순항 해안 침식 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황우치해변 앞 바다에 모래유실을 막을 수중방파제인 '잠제' 공사를 실시, 2015년 이후 3기가 설치된데 이어 2018년엔 화순항내 준설 모래 22만㎥를 황우치해변으로 옮겨 채우는 양빈작업도 했습니다.

문제는 사업추진에도 불구하고 모래유실은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확인결과 양빈작업으로 해변을 메웠던 모래는 사라졌고, 드러낸 지질층으로 삭막한 해변 모습이었습니다.

도는 양빈작업 이후 태풍 등의 영향으로 모래 대량 유실측면이 있어 아직 사업효과를 예단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전문가는 화순항 관공선 부두로 해류흐름이 바뀌면서 모래유실이 가속화됐고, 거액의 예산을 들인 사업에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견해입니다. 주민도 지난 2000년대 화순항 방파제공사이후 조류변화로 모래 유실이 급속히 진행됐고 잠제공사에도 효과를 못봐 세금만 낭비한 꼴이라는 겁니다.

이제 황우치해변 모래유실 원인 진단과 함께 당초 사업추진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전국에 조류흐름 변화로 모래유실 해안이 많은데 잠제시설과 양빈작업으로 성과를 거둔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입니다.

황우치해변 사업이 세금낭비라는 지적을 안 받으려면 사업 전 과정과 효과를 철저하게 검증해 볼 시점입니다.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강정윤(前 중등교원·향년 58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5월 15일

부 인 고 문 심
아 들 강 지 웅
딸 강 문 영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른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유라실생 4년생
유라실생 3년생
유라실생 접수분양
천 혜 향 4년생
성전온주 4년생
황 금 향 4년생
탱 자 묘 1년생, 수고 70전
유라조생 2년생 특묘 사전계약 안내
한림종묘
010-3690-2453

감귤묘목
* 유라실생 1,2,3년생
* 레드향(무독) 1년생, 2,3년생
* 천혜향(무독) 2,3년생
* 궁천 1,2,5년생
* 궁천 변이지 1,2년생
* 하례조생 1,2년생
* 한라봉 5,6년생
*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실묘목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제주 18-2003-20-08
010-2699-2355

금 매
• 품 목 : 운석 1점
• 감정가 : 20억원
• 조 건 : 매매 또는 대물교환
연락처
010-4855-6013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주)전기자동차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